

## << 북한 사회에 재건에 있어서의 특별한 도전들(문제들) >>

벤 토레이(Ben Torrey)신부님

슬라이드 노트내용

### 슬라이드 1 - 제목

### 슬라이드 2 - 개요

일화적인 증거는 우리에게 많은 개념과 현실에 대한 암시 그리고 좀 더 많은 연구를 요하는 질문들이 나오게 합니다. 제한된 범위 때문에 몇몇 일화를 통해서 추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잘못 이해될 수도 있고 잘못된 결론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지식들에 비추어 평가되었을 때, 그러한 일화들은 전체적인 이해에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지식은 사회와 가정, 그리고 실제 믿음의 본질 등 북한 안에서의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로 연구하기에 가장 어려운 분야들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연구하기 용이한 사람들은 현재 남한에 있는 수 천명의 북한 탈북자들과 일본에 있는 조총련들입니다. 하지만, 두 그룹의 사람들로부터의 연구결과를 북한 주민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성에서 얻어질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남한의 회사들을 향한 북한의 개방과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상업적으로 연결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북한에 대해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이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노력은 일정 지역이나 언어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확고한 연구의 노력과 그 위에 학문적인 분야들을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로 성공적이며 종합적이기 위해서는 한글은 영어로 영어는 한글로 번역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한에 강한 관심이 있는 반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역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선교와 나라를 건설하는 관점에서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그들이 연구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에 대해 다른 문화적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연구내용들을 다른 문화적인 관점에서 비추어 보는 것은 두 그룹 모두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의 가장 중요한 면 중에 하나는 각 전문분야의 협력과 다문화적인 “이화(異花)”입니다. 즉, 한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결과적인 상호작용은 새로운 시각과 더 풍부한 지식을 산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 슬라이드 3 - 개요 (계속)

통일문제에 있어서 이미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는 몇몇 연구가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는